

2020 새 설계

문인 광주 북구청장

“구민·현장 목소리 중심 혁신행정 박차”

예산 7000억 시대 성장기반 다져
인공지능 중심도시 육성에 혼신
생활밀착형 인프라 대대적 확충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행정의 중심에 두는 ‘혁신 행정’으로 광주의 중심 자치구(區)로 도약하겠습니다.”

문인(61) 북구청장은 28일 “취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구민중심 혁신행정’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었다. 앞으로도 북구민과 현장 목소리를 행정의 중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예산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데 북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사업비가 66%를 차지해 전국에서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며 “중앙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발로 뛰며 국비와 시비 등 예산을 확보해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구청장은 취임 후 열악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나 광주시 주관의 각종 평가와 공모를 통해 상사업비를 유치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반 동안 공모사업 상사업비는 826억원 유치 및 특별교부세 131억, 특별교부금 120억 등을 교부받고, 올해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문 구청장 취임 이후 북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민중심·현장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발전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열악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에서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163회 수상하고 상사업비 826억원을 확보한 것도 문 구청장의 성과로 꼽힌다.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새해 구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문 구청장은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또한 북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준비해 가고

있다.
문 구청장은 산업현장 밀착형 ‘경제중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산업단지외 2만 6000여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발표한 2019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상위 10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 시군구 중 종합경쟁력은 26단계, 경영성과는 39단계가 상승하며 기준이 되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자치구로 평가 받기도 했다.

또한 4차 산업을 선도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 드론 등 ‘4차 산업융합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해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 구청장은 또 오는 2022년까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북향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며 시화문화마을에 광우 문학관을 유치해 북구를 문학·미술·자치가 어우러진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성과는 44만 구민의 애끓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0년은 북구청이 개청 40돌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북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며 “구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춰진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에 계시는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함께 소통하며 답을 찾는 혁신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7기 510명 모집

350개 사업장서 일경험

19~34세, 2월14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7기에 참여할 드림청년 510명을 모집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광주청년드림 공식사이트(www.gj3dreams.modoo.at)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을 하고,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드림 만남의 날’ 상담과 면접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드림청년들은 3월 2일부터 7월31일까지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

개 유형 350개 사업장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고 일경험을 할 수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은 지역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기씩 운영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6기 기수 2000여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4기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광주시는 7기 운영을 위해 지난달 6기 유형 참여사업장(드림터)을 공개모집하고 실사를 거쳐 총 350개 사업장을 발굴했다. 선정된 사업장 정보와 청년들의 직무 정보는 드림터디비(DB) 사이트(www.gjdreamworks.modoo.at)에 공개돼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금액·대상 확대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 가구의 급여를 7.5~14.3% 인상한다.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에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자가거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원

한다.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9000원, 2인 가구 19만8000원, 3인 가구 23만6000원, 4인 가구 2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됐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주거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북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발렌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등 제조·판매업체 점검

광주시는 발렌타인데이(2월14일)를 앞두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초콜릿, 캔디류, 과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식품위생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5개반 23명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총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원료보관실, 제조·공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국내 제조 및 수입 초콜릿, 캔디류 제품 등을 수거·검사해 타르색소 적정 사용 여부 및 세균 수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20건)도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서구, 매달 첫째주 목요일 야간급연클리닉 운영

광주시 서구가 새해를 맞아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간급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니코틴 의존도평가·소변농도 검사·흡연유형평가·일산화탄소농도 측

정 등을 받은 뒤 보조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금연전문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행동요법 유도 기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구는 금연클리닉 등록,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을 지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구, 구민과 대화 ‘열린 구청장실’ 운영

내달 13일까지 27개동 주민 초청

광주시 북구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행정을 펼친다. 북구는 “다음달 13일까지 북구내 27개 동 자생단체장 등 주민들을 구청장실로 초대해 구정 성과와 현안을 공유하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열린 구청장실’은 각 동별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 등을 청취해 향후 구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28일 중흥1동·중흥2동·중흥3동·중앙동·용봉동 등 5개 동 50여 명의 주민들을 구청장실로 초대해 생활SOC복합화 사업,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주민자치관 리제 확대 등 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 민선 7기 구정성과를 공유하고 각 동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북구는 이날 5개 동 주민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내달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남은 22개 동 주민들을 만나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열린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북구는 민선 7기 현재까지 27개 동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442건 중 322건(처리율 73%)을 완료했으며 총 54회의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트로 실버도ومی’ 안전교육 광주시청도공사가 한 해 추진하는 ‘메트로 실버도ومی’ 사업에 참가하는 어르신들이 현장 배치 전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29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에는 308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서 장애인·노약자 이동을 돕고, 고객 안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돕는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